

**담당 : 홍보팀 김균섭 사원ㅣ E-mail : media@klpga.org**

**‘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’ 1R 오후조 주요 선수 코멘트**

**박혜준, 이예원**

**◈ 대회개요**

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
| 1 | 대 회 명 | 2025 오로라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 |
| 2 | 기 간 | 2025년 7월 31일(목) ~ 8월 3일(일) |
| 3 | 장 소 | 오로라 골프&리조트 [마운틴(OUT) / 레이크(IN)] |
| 4 | 주 최 | 오로라월드(주) |
| 5 | 주 관 | KLPGA(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) |
| 6 | 총 상 금 | 10억 원 (우승상금 1억 8천만 원) |
| 7 | 코스길이 | 파72 / 6,509야드 |
| 8 | 참가인원 | 120명 |
| 9 | 주요  출전선수 | 이예원, 고지우, 노승희, 김민선7, 김민주, 이가영, 박혜준, 박보겸, 유현조  박지영, 한진선, 김시현, 송은아, 정지효, 박민지, 김소이, 성유진, 김수지  김도희(A), 김지영2 등 |
| 10 | 중계방송 | SBS골프, 네이버, 다음카카오, U+모바일tv |
| 11 | 방송일정  (생중계) | [1라운드] 11시 ~ 17시  [2라운드] 11시 ~ 17시  [3라운드] 10시 ~ 16시  [최종라운드] 10시 ~ 16시 |

**◈ 박혜준, 1라운드 중간합계 5언더파 67타 \*공동 3위(18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8>

**Q. 경기 소감은?**

특별히 잘 되지도 그렇다고 딱히 안 된 점도 없었다. 평소 하던 대로 치려고 했고, 퍼트도 라인을 본 대로 치려고 집중하니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플레이했다.

**Q. 코스는 어땠나?**

도그레그 홀이 많아 티샷 공략이 까다로운 편이다. 티샷만 잘 파악해 치면 충분히 타수를 줄일 수 있는 코스라고 생각한다.

**Q. 첫 우승 후 하이원 대회에서는 성적이 좋지 않았는데, 이유가 있었나?**

당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. 우승 후 행사가 많았고 축하한다고 연락주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다 전하다보니 잠을 거의 못 자,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. 대회 전날까지도 잠을 세 시간도 못 자고 일정을 소화했다.

**Q. 2주 휴식기에는 어떻게 보냈는가?**

쉬는 기간에도 일정이 많아 완전히 쉬지는 못했다. 연습도 원하는 만큼은 못 했지만, 틈틈이 퍼트 위주로 연습했다.

**Q. 샷 감은?**

우승할 때처럼 정확히 ‘꽂히는’ 느낌은 덜하지만, 그래도 그 좋았던 샷 감이 어느 정도 이어지고 있다. 5미터 안쪽에 공을 붙이고, 퍼트로 한두 개씩 넣다보면 좋은 결과를 얻을 것 같다.

**Q. 대회 임하는 각오**

내일은 우선 부담 없이 편하게 임하면서 나 자신을 한번 믿어보겠다. 그리고 이번 대회 우승 트로피가 예쁘다. 첫 대회이기도 하니 초대 챔피언이 되어 그 트로피를 집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.

**◈ 이예원, 1라운드 중간합계 4언더파 68타 \*공동 11위(18시 기준)**

**[상세 프로필]**

<https://klpga.co.kr/web/profile/mainRecord?playerCode=9784>

**Q. 오늘 경기 소감은?**

이 코스는 버디를 많이 쳐야 할 것 같은데, 너무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면 보기로도 이어질 수 있다. 그래서 오늘은 차분하게 실수 없이 플레이 하고자 했는데 준비했던 대로 잘 마무리해 만족스럽다.

**Q. 코스는 어땠나?**

핀 위치가 까다롭다고 느꼈다. 짧은 클럽을 잡아도 핀 포지션이 까다로우면 스코어를 내기가 어렵다. 특히, 100미터 이내 웨지샷에서 뜻대로 되지 않은 부분이 몇 개 있었는데 내일 좀 더 신경 써서 플레이하면 더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 같다.

**Q. 날씨는?**

너무 더웠다. 중간에 바람이 조금 불어 그나마 괜찮았지만, 전반적으로 무더운 하루였다. 내일은 오전 조라서 좀 나을 것이라고 기대한다.

**Q. 2주간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했는데, 오늘 경기에 도움이 됐나?**

체력 훈련을 하면서 동시에 휴식도 병행했다. 너무 무리하면 오히려 지칠 수 있다고 판단해 적절히 조절했다. 덕분에 오늘 경기는 힘들지 않게 잘 마무리했다**.**

**Q. 내일 각오는?**

내일도 버디를 너무 의식하지 않고, 차분하게 플레이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. 내일도 열심히 준비하겠다.